

가게 턴 강도에게 ‘일자리’ 제의한 주인



▲ CCTV에 찍힌 도둑질하는 남성과 그에게 일자리를 제안한 윌리스(원 안). 사진=유튜브(Viral News) 캡처

조지아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칼 윌리스는 지난 4일 새벽, 휴대전화 경보음을 듣고 잠에서 깼다. 경보음은 자신의 식당에 누군가 침입하면서 울렸다. 윌리스는 즉시 식당으로 달려갔다.

CCTV 확인 결과 두건을 쓴 남성이 식당의 외벽 유리벽을 깨고 들어온 뒤 현금을 훔치기 위해 카

운터로 갔다. 하지만 비어있는 현금 보관함만 든 채 현장을 빠져나갔다. 불과 45초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윌리스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려다가 생각을 고쳤다. 그리고는 페이스북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당신이 선택한 것보다 더 나은 기회가 있다. 삶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돈이 문제라면 당신에게 구직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면서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을 것이고, 개인사를 묻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당신이 가고 있는 잘못된 길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고 싶다.”고 적었다.

이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누군가는 강도의 구직활동을 돕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 페이스북 사용자는 “지금까지 본 게시물 중 가장 인상 깊었다. 사업적으로 그의 선행을 돕고 싶다.”며 동참의 뜻을 밝혔다.

윌리스는 “부활절에 일어난 일이었다.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는 서로에 대해 용서해야 한다.”면서 “내가 한 선택은 인생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멘토가 되려고 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브라질 성매매 여성들 “백신 우선 접종” 요구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상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브라질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백신 SOS’를 요구하고 나섰다.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 성매매여성협회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가장 노출돼 있는 사람들은 성노동자들”이라며 백신 접종에 우선권을 인정해 주기를 요구했다.

시다 비에이라 협회장은 인터뷰에서 “백신 접종에서 특혜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성매매 여성들을 인도적 시각으로 봐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직업 특성상 매일 복수의 사람들과 신체적 접촉을 갖게 된다.”며 “이런 의미에서 우린 코로나19 취약계층이며, 위험군으로 분류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미나스제라이스주 성매매여성협회는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한편 회원들에게 전화나 이



▲ 브라질 성매매 여성들이 백신 우선 접종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사진=트위터(Jessica Balbino)

메일 등을 통해 “일을 중단하라.”라고 권고 중이다.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워낙 빨라진 때문이다.

비에이라 회장은 “일을 중단하지 못하는 회원들에게 손소독제 사용과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고 있지만 방역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백신 접종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만남 적 없는 범죄자와 결혼하려는 여성



▲ 나오미 와이즈(왼쪽)와 빅터 오웬도. 사진=telecinco.es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재소자와 편지로만 연락을 주고받다가 사랑에 빠져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한 영국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영국 첼름스퍼드에 사는 나오미 와이즈(26·여)는 미국 미시간주 마콤 교정시설에서 2034년까지 수감 예정인 빅터 오웬도(29·남)와 오는 9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심리 상담가를 꿈꾸던 나오미는 지난해 6월 재소자를 위한 편지 상담 프로그램에서 오웬도를 만났다. 이들은 편지와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싹틔웠다. 오웬도는 19살 때 폭력조직에 가담해 2명을 총으로 살해하고 3차례의 무장 강도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24년형을 선고받고 10년째 복역 중이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런 오웬도가 “괴물이 아니라 인간”이라면서 “빅터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친절하며 평생 함께 하고픈 남자”라고 말했다.

나오미도 처음부터 그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오웬도가 몇 달에 걸쳐 세 번이나 전화로 청혼했지만 나오미는 불확실한 미래와 자신의 가족이 걱정돼 매번 거절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는 커다란 꽃다발과 함께 반지를 받았다. 오웬도가 가족을 통해 전달한 청혼 선물이었다. 나오미는 결국 오웬도의 청혼을 수락했다.

나오미는 오웬도가 42살에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자신은 39살이 되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미시간주 법이 바뀌면 2027년에 석방될 수도 있다.”며 “취업 비자나 학생 비자를 얻어 오웬도의 출소 전까지 미국에서 살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실하게 다른 치료요법과 탁월한 효과를 직접 체험해보세요.

- 위장병
- 각종 통증
- 우울증
- 불면증
- 알러지, 피부병
- 공황장애
- 비만, 불임
- 오십견
- 목,허리디스크
- 중풍 후유증
- 소아 자폐증
- 파킨슨병, 치매



얼바인에서 제일 크고 쾌적한 한의원
 훌륭한 치료, 저렴한 가격
 정확한 진맥과 훌륭한 처방

난치병을 잘 치료하기로 소문난 얼바인

북경 차한의원

Dr. 차계향 Ph. D., L.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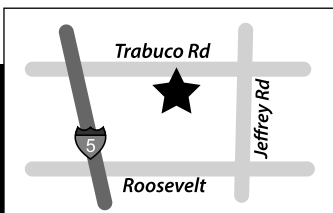
- 중국중의과학원 의학박사 (중의내과)
- 북경중의약대학 의학석사 (침구추나)
- 요녕중의약대학 의학학사 (중의과)
- 세계 최고권위 중의 명문대학에서 중국 MD 및 중의사 자격증 취득
- 신경내과, 소화기내과 및 임상침구학 전공
- “만성위염의 중의 임상치료가이드”편찬 참여
- 중국 최고권위 중서의 종합병원 서원병원 동적문병원 등 대형대학병원임상 13년, 전체 임상경력 23년
- 1급 양생기공사 자격, 기공수련 30여년
- 미국내 중의대 교수

기 침(氣針)

에너지 경락 추나 마사지

기공진복(氣功振腹)

태극 불 부항, 옥 경락 팔사



www.acupuncturecha.com

北京中和國醫堂

PPO 보험
 취급

949.426.9070 / 626.899.5166
 5400 Trabuco Rd. Suite 130, Irvine, CA 92620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가능